

# 29명 여류 서양화가 초청 '기린아트페어'

12월 31일까지 기린미술관 제3관에서 첫 개최

기린아트페어(Girin Art Fair:GAF)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분임 작가)에서는 23일부터 기린미술관(관장 이현옥) 제3관에서 기린아트페어를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린아트페어는 23일 탄생했다.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정(안)을 만들어 총회에서 추인을 받고 우선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분임 작가를 선정했다.



기린미술관 제3관에서 23일부터 기린아트페어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기린오피스텔 내에 그림 상설 판매 전시관을 개설하고 이를 기획, 전시 및 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기린아트페어라 하고, 기린아트페어의 기획, 전시 및 판매 시 작가들의 상호협조와 작품 판매를 촉진하여 작가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엄선한 29명의 초대작가를 중심으로 운영의 주체로 기린아트페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회원의 자격은 학력, 경력, 수상실적 등을 배제하고 작품 위주로 선정하며, 잠정적으로 서양화 여성작가로 제한하고,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득한 자중에 자문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초대작가에 한하기로 했다.

회원은 매달 작품 3점(크기, 프레임 자유) 전시를 의무로 하며 한 달 후 다음 전시에서는 2점 이상을 교체하고, 위치를 5칸씩 이동하여 전시한다.

본회의 모임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모임 및 임시모임으로 구성되며 우선은 SNS를 활용한 모임도 인정된다.

추후 참여 초대작가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시 대기 작가로 등록하며 결원이 생길 시 순차적으로 참여한다. /김재훈 기자

# 영국 그림자인형극 예술인 초청 공연

전주문화재단, 26~27일 드류 콜비 초청 예술놀이 행사 개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26~27일 양일 간 영국의 그림자인형극 전문 예술인 드류 콜비(Drew Colby)를 초청해 예술놀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해외 예술인 초청 및 예술놀이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 (재)춘천인형극제와 협력 운영한다.

이번 행사를 위해 전주에 방문하는 드류 콜비(Drew Colby)는 시민을 관객으로 하는 그림자인형극 공연 '그림자와 나(My Shadow and Me)', 지역 예술인과의 교류 워크숍 프로그램 '예술가의 손(Artists' Hands)'을 각각 진행한다. 특히 드류 콜비는 고전적인 그림자놀이 기법으로서의 손그림자(hand shadows) 작업을 통해 BBC, C4, ITV 등 세계 여러 방송국 프로그램에 소개됐고, 2021년 Germany's Got Talent에서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국제교류 차원에서 지역기간 간 연대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며 "해외 유



관기관 뿐만 아니라 국내 기관들과도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지속해 전주문화재단이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국제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초청공연 및 워크숍의 참여를 원하는 시민과 예술인은 팔복예술공장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예술놀이팀(063-283-92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남원시 무형문화유산 가치 공유 나들이

'무형유산관광×국악버스킹' 진행

남원시는 지난 20일, 조갑너살풀이명무관과 안숙선 명창의 여정 전시관 일대에서 무형유산 가치를 공유하고 남다르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과 남원시가 주최하고 사)무형문화연구원 연구원이 주관하는 '2022 지역 무형유산보호지원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남원 4분기 무형문화유산 나들이 '무형유산관광×국악버스킹'이 그것.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가진 무형문화재와 지정문화유산을 연계,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시민들이 지역 무형유산을 더욱 친숙하게 접하고, 이를 통해 무형유산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특별히 계절



별 무형유산 공유 나들이에 버스킹 공연을 콜라보로 구성, 오는 12월까지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행사로 '사랑춤 놀이' 코스 나들이와 소리꾼 유순덕과 동편제시민관소리합창

단(대표 박형석)의 국악버스킹 콜라보로 진행됐으며,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의 참가자들이 안숙선 명창의 여정 전시관 등을 둘러, 판소리의 고장 남원의 정체성과 무형유산의 중요성을 함께 공유·인식하고, 조갑너살풀이명무관 마당에서 관객과 하나되는 소리판을 통해 무형유산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의 '2022년 지역 무형유산 보호지원 사업'은 지역 무형유산의 보호와 전승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는 12월까지 남원 일대에서 무형문화재 행정역량 강화와 무형문화재 협력 네트워크 구축, 관광자원화 분야 프로그램 등이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주한벽문화관, 31일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전주한벽문화관은 오는 31일 문화가 있는 날 'The Classic: 사계 그리고 영화' 공연을 펼친다고 밝혔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정복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헤르츠아카데미앙상블'이 무대를 꾸민다. 헤르츠아카데미앙상블은 지난 2016년 창단해 전북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로, 매해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며 관객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한편 8월의 문화가 있는 날은 감성 가득한 클라리넷 앙상블 구성으로 진행된다. 1부에선

바로크 음악의 거장 '헨델'의 작품과 음악의 신동이자 고전음악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오중주, '이탈리아의 모차르트'로 불렸던 로시니의 대표적인 작품인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서곡이 연주된다.

이어지는 2부에선 클라리넷 앙상블의 매력 느낄 수 있는 클라리넷, 클라리넷을 위한 카프리스, 거슈윈 모음곡 등 색다른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또한 헤르츠아카데미앙상블 손성한 지휘자의 편안한 해설이 함께 더해져 더욱 쉽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전주공예품전시관, 공예트렌트페어 참여작가 모집

전주공예품전시관은 '2022 공예트렌트페어' 참여작가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2022 공예트렌트페어는 오는 12월 8~11일 4일간 진행되는 공예 전문 박람회다.

이에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지역 공예작가의 역량 강화와 소통의 기회 마련을 위해 이번 공예트렌트페어 참여 기회를 마련했다.

도내 활동하는 작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1팀 당 최대 작품 3점을 접수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최종 10팀이 선발되며, 팀당 최대 2점의 공예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출품 작품은 제작과정의 20%이상을 수공예로 제작한 작품으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하며, 포장할 수 있는 패키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선정된 작품은 박람회 현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최소 10개 이상의 수량을 전시관에 제출해야 한다. 현장 반응과 호응도를 통해 지원작 상위 3종은 전주공예품전시관에 입점 기회도 주어진다.

참가 신청서는 전주공예품전시관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접수는 오는 20~30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며, 이메일(eunj@kacc.or.kr)로 실물은 전주공예품전시관 사무실에 접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부안군문화재단-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업무협약

(재)부안군문화재단(이사장 권익현, 이하 재단)과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원장 정우택, 이하 연구원)은 23일 부안군청 중회의실에서 '신석정 시인의 근대작가 사적 기록물 DB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부안의 신석정 시인이 남긴 일기, 서간, 창작 노트 및 창작 메모 등의 사적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관과 관리를 위한 DB 작업으로, 시인의 소장자료를 조직화하여 한국 근대 문화의 연구에 이바지하고자 양 기관의 발전적인 협력 관계를 위해 체결하는 것으로 협약 기간은 23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5년간이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석정문화관에 소장되

어 있는 신석정 시인의 사적 기록물 7천여 건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보존과 관리, 대동문화연구원이 연구한 기록물의 정서본, 현대어본, 메타데이터 구축 및 자료집이나 연구서 제작 등에 대해 상호 공유와 신석정 시인 사적 기록물의 문화적 가치 확산에 대한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재단은 석정문화관이 소장하고 있는 석정 시인 사적 기록물의 가치를 국가적으로 인정받고 재조명하여 문화적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고, 양 기관 간의 학술적 협력을 통하여 상호 우호 증진 및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청